

한 점, 한 방울이 모여 우주를... '돈 멜초 × 김환기'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서울 잠실 롯데백화점 본점 에비뉴엘에서 열린 '돈 멜초 X 김환기 2021 우주' 출시를 기념하는 팝업스토어. /안상미 기자

“나는 술을 마셔야 천재가 된다. 내가 그리는 선, 하늘 끝에 더 갔을까. 내가 짙은점, 저 총총히 빛나는 별만큼이나 했을까. 눈을 감으면 환히 보이는 무지개보다 더 환해지는 우리강산.” (김환기 작가의 일기, 1970년 1월 27일)

작가는 상상이나 했을까. 술을 사랑했던, 술을 마셔야 천재가 된다던 자신의 작품이 와인병에 입혀질 줄 말이다. 사실 듣는 사람들이 더 놀랐다. '돈 멜초 2021 X 김환기 우주' 한정판이 나온다니. 다른 누구도 아닌 한국 현대미술의 거장인 김환기 작가의 작품이다.
#. 최고에 최고를 더하다

“8800만 달러.”
2019년 11월 23일, 크리스티 홍콩 경매에서 김환기의 '우주'가 한화 132억원에 낙찰됐다. 한국 미술품으로는 깨지 못할 것만 같았던 100억원을 단숨에 넘어선 것은 물론 사상 최고가로 지금까지 깨지지 않는 기록이다.
'우주'는 푸른빛의 추상점화로 작가의 절정기를 대표하는 작품이다. 그의

작품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대작이며, 유일한 두 폭짜리 그림이다. 점과 선, 면이 어우러지면서 보는 이마다 자신만의 우주를 떠올릴 수 있다.
와인 역시 칠레 프리미엄 와인 중에서도 켈트와인의 시초로 불리는 '돈 멜초'다. 특히 2021년은 돈 멜초로는 세기의 빈티지라고 불릴 만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세계적인 평론가 제임스 서

클링으로부터 99점을 받았다.
최준선 롯데백화점 소믈리에에는 “돈 멜초 2021년은 좋은 산도와 잠재력으로 볼 때 어찌하면 100점을 받았던 2018년보다 더 빛을 발할 수도 있는 빈티지”라며 “와인과 아트의 협업을 추진하면서 우주 작품만이 돈 멜초와 밸런스를 맞출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최고와 최고를 만나게 하려니 쉽지는 않았다. 2년이나 공을 들여 김환기 재단을 설득했고, 진행이 결정되고도 한정판이 나오기까지는 1년이 걸렸다.
돈 멜초도 와이너리를 '비나 콘차이 토로'에서 '비나 돈 멜초'로 분리할 만큼 대표 와인이라 고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 한 점, 한 방울이 모여 우주를
돈 멜초가 생산되는 '푸엔테 알토' 지역은 칠레에서도 프리미엄 와인 산지로 꼽히는 곳이다. 자갈 토양과 안데스의 영향으로 카베네 소비뇽을 재배하기 최

적의 곳이다.
와이너리는 각 토질의 개성에 따라 세심하게 구분해 관리한다. 같은 카베네 소비뇽이지만 크게 7구획으로 나눠 따로 양조한다. 각각의 탱크별로 맛을 본 다음 매년 최고의 균형을 이루는 카베네 소비뇽이 되도록 블렌딩 비율을 바꾼다. 작품 '우주'와 돈 멜초를 아우르는 키워드는 균형과 조화인 셈이다.
돈 멜초 2021 빈티지는 붉은 베리류와 제비꽃 향기로 시작해 민트와 삼나무향까지 가득하다. 좋은 산도와 부드러운 타닌이 길게 이어진다. 숙성 잠재력이 35~40년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술 알 먹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김환기 작가의 그림일기 속 구절이다. 좋은 작품을 바라보고 있자니 와인, 안 먹을 수도 없고. 어쩔 이리 내 맘과 같을까.
/smahn1@metroseoul.co.kr

주말은 책과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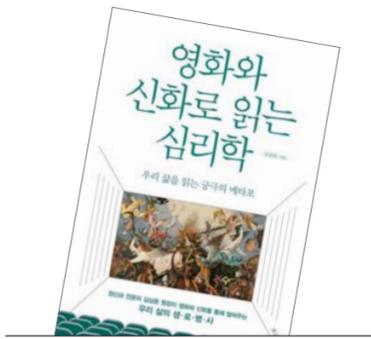
영화·신화에서 찾는 현명한 대처법

지난 2020년 12월 소셜미디어 트위터(현 X)에 한 일본인이 “공부란 퍼릿속에 지식을 집어 넣는 행위”가 아닌 “세계의 해상도를 높이는 활동”이다라며 “이 해상도 향상감”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은 강하다”는 내용의 트윗을 게시해 사람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영화와 신화로 읽는 심리학’을 탐독하며, ‘공부는 세상에 대한 해상도를 높여 나가는 과정’이란 말을 새삼 실감했다. 정신과 전문의인 저자는 영화라는 캔버스에 그리스 신화를 덧대 사람의 심리를 선명하게 색칠해낸다. 저자는 19편의 영화와 관련된 신화를 들려주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는 수많은 문제에 현명하게 대처해 나갈 방법을 알려준다.

책은 ▲인간의 가면, 페르소나를 다룬 제1장 ‘자아를 찾아서’ ▲누구나 맞닥뜨리는 삶의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는 제2장 ‘시련을 건너는 법’ ▲사랑이란 감정이 무엇인지 고찰해보는 제3장 ‘사랑의 의미’ ▲욕망의 억압과 분출이 균형을 이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제4장 ‘인간 내면의 본능과 욕망의 그림자’ ▲생로병사를 철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제5장 ‘삶이란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는 여정’으로 구성돼 있다.

가장 흥미로웠던 내용은 영화 ‘트루먼 쇼’에 대한 저자의 통찰이었다. 방송속에 입양된 트루먼 버뱅크는 29살이 될 때까지 자신의 전생(全生)이 5000여개의 감시 카메라를 통해 세계 곳곳에 생중계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그는 지상 낙원과도 같은 아름다운 섬, ‘씨헤이븐’에 살고 있지만, 무릉도원을 벗어나 탐험가가 되고 싶어 한다. 주변배우의 인생을 조작해 낸 연출가 크리스토프는 트루먼이 섬을 탈출하려는 시도를 하면 벌을 준다. 요트 탐험 중 아버지를 죽게 해 물 공포증이 생기게 하고, 바다



영화와 신화로 읽는 심리학
김상준 지음/보아스

로 나가면 인공과도를 만들어 죽음의 문턱에 다다르게 한다. 그럼에도 트루먼은 모든 난관을 뚫고 인공섬의 끝에 도달한다. 크리스토프는 그에게 “밖은 이곳처럼 안락하지 않고, 범죄와 불행이 도사리고 있다”고 경고하지만, 트루먼은 진짜 세상을 향해 걸어나간다.

저자는 트루먼 쇼의 줄거리가 성경에 나오는 ‘아담과 이브’ 이야기와 비슷하다고 분석한다. 쇼의 연출자 크리스토프는 에덴동산을 만든 신과 같은 위치에서 인간의 운명을 좌지우지한다. 트루먼에게 선악과처럼 금기시된 건 인공섬 밖으로 나가고 싶어하는 마음이다. 에덴동산과 씨헤이븐은 인간에게 주입된 사회제도와 가치관이며, 교육은 세뇌를 통해 기성의 사상과 관념을 정당화한다.

저자는 “트루먼은 씨헤이븐을 탈출하고 난 뒤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하고, 아담과 이브는 스스로 노동을 해야 하지만 이는 슬퍼할 일이 아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자신의 자유를 쟁취할 수 있다”고 말한다.
280쪽, 1만4000원.
/김현정 기자 hjk1@

픽션의 가장자리

책은 스탕달에서부터 발자크, 보들레르, 위고, 모파상, 프루스트, 릴케, 에드거 앨런 포, 콘라드, 제발트, 버지니아 울프, 포크너를 거쳐 주앙 기마랑이스 호자에 이르기까지 세계적 거장들의 문학작품 분석을 통해 문학혁명이 어떻게 민주주의의 가장자리를 따라나 있는지 살핀다. 저자는 근대와 현대 픽션에 등장한 새로운 주체는 누구이고 공통의 세계는

무엇인지를 탐구한다. 우리 시대의 사상이 자크 랑시에르가 말하는 ‘픽션의 정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모든 것’으로 만드는 일, 공통의 세계와 공통의 이야기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책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픽션의 정치’를 통해 어떻게 주제로 등장하고,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세상을 어떻게 바뀌어왔는지 보여준다.
336쪽, 2만2000원.

자크 랑시에르 지음/최의연 옮김/오월의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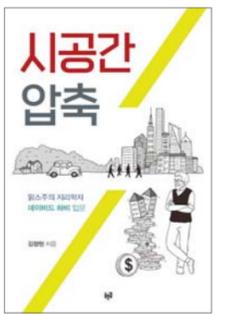


시공간 압축

‘시공간 압축’은 맑스주의 지리학자인 데이비드 하비 입문서다. 저자는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의 사회적 배경을 설명하고, 그 안에서 성장·발전해나가는 하비의 지리적 사상을 풀어낸다. 데이비드 하비의 연구는 단순한 지리적 경계를 넘어 자본주의, 도시화, 사회적 불평등 문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제시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고

저자는 말한다. 하비는 특히 ‘시공간 압축’ 개념을 통해 자본주의의 확산과 기술 발전이 시간과 공간의 의미를 어떻게 바꾸어놓았는지를 치밀하게 추적했다. 책은 ‘포스트모더니티의 조건’ 발간까지 하비의 생애와 그의 주요 이론을 따라가며, 그가 현대 지리학과 사회이론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252쪽, 1만6000원.

김창현 지음/푸른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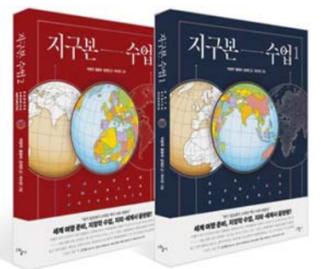


지구본 수업 1·2

태평양은 지구 표면적의 약 34%를 차지하는 매우 큰 바다임에도, 세계지도에서 보면 북극해나 남극해에 비해 그다지 넓어 보이지 않는다. 왜 그럴까? 평면 세계지도의 치명적인 단점인 면적 왜곡이 발생해 적도에 가까울수록 상대적으로 작게 보이고, 극지방에 가까울수록 실제보다 크게 보이기 때문이다. 평평한 세계지도는 우리의 ‘시간·공간·거리 감각’에도 그릇된 편견을 심어놓았다. 세계는 태

평양을 중심으로 아시아와 아메리카가 마주 보고 있다는 통념이 대표적이다. 진짜 세계에는 중심이 없으므로 우리의 시야는 사방으로 뻗어 나가야 한다. 책은 책상 위에 놓인 ‘평면 세계지도’로는 절대 알 수 없는, ‘입체적 지구본’을 통해서만 보이는 ‘지구 전체사’를 다룬다.
각 268쪽·248쪽, 각 1만9500원.

박정주, 황동하, 김재인 지음/도서출판그림씨



BS11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해리스·트럼프 TV토론 규칙 확정... 발언자 마이크만 ‘온’
▲ 트럼프 “해리스 당선되면 대공황, 3차 세계대전 발생” /사진 뉴시스

▲ 바이든, 조지아 총격 희생자 애도 성명... “무의미한 총기폭력” 근절 선언
▲ 엔비디아 “美 법무부 소환장 받은 적 없다”



▲ “바이든, US스틸 매각 저지 준비” 보도에 日 “미일 경제관계 강화 필수”
▲ 英 마지막 석탄발전소 역사 뒤안길로... “이달 말 폐기 절차 착수” /사진 뉴시스